

기고

윤신근 수의사·동물학박사 한국동물보호연구회장



반려묘와 봄나들이 꼭 하고 싶다면...

얼마 전 필자가 운영하는 병원에 교통사고를 당한 반려묘가 왔다. 길냥이가 아닌 집 안에서 반려묘가 교통사고를 겪는 일도 있을까 의아해하는 독자도 많겠지만, 반려묘 교통사고는 흔하지는 않아도 종종 일어난다.

특히 요즘처럼 날씨가 따뜻해지는 봄에는 반려인과 외출했다가 교통사고 등 안전사고를 겪는 일이 적잖다.

사실 이는 반려묘 잘못이라기보다 반려인 탓이라고 보는 것이 옳다.

적당한 운동량이 필요한 반려견과 달리 반려묘는 비만인 경우를 제외하면 집안에서 움직이는 것으로 충분히 운동이 된다.

게다가 고양이는 영역 동물이라 자신의 영역이 아닌, 낯선 장소에 가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그러나 반려인 중에는 외출하거

나 산책할 때 굳이 반려묘를 데리고 나가려는 경우가 있다. 햇볕도 쬐고, 바람도 맞게 해주겠다고 선한 뜻이 대부분이지만, 개중에는 '엑세서리' 삼으려는 의도도 있다.

문제는 끈이 달린 목줄이나 가슴줄을 해주지 않은 채 품에 안고 나갈 때다. 반려묘 중에는 목줄 같은 것을 싫어하는 아이가 많다.

아이가 싫어하니 억지로 목줄을 채우는 일 없이 안고 다녀오면 되겠다는 생각인데 이런 안이한 생각이 안타까운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

반려견은 놀라는 일이 있으면 이를 위협으로 받아들여 반려인을 지키려고 하거나 품 안으로 더 파고 들며 반려인에게 의지하기 마련이다.

반려묘는 다르다. 고양이는 개보다 성격이 예민하다. 그러다 보니

더 쉽게 놀란다. 이때 반려인 곁에 더 있으려고 하면 다행이지만, 거의 모든 반려묘가 앞뒤 재지 않고 도망치려 든다. 이때 자칫 사고를 당할 수 있다.

필자를 찾아온 반려묘도 그런 경우였다. "우리 아이는 안 도망가요"를 입버릇처럼 하던 이 반려인은 그날도 목줄이나 가슴줄 없이 반려묘를 품에 안고 외출했다. 뒤에서 오던 차가 클랙스를 크게 울리면서 꼭 안고 있던 반려묘가 빠져나가서 도망치다 다른 차에 치이고 말았다.

고양이는 몸이 유연해서 아무리 꼭 끌어안고 있어도 마음만 먹으면 바로 빠져나올 수 있다.

목줄이나 가슴줄을 하고 있으면(몸에 딱 맞춰 제대로 채우는 것은 필수) 끈이 있어 만일 품에서 빠져 나간다고 해도 바로 잡을 수 있다. 그러나 그런 상태가 아니면 교통사

고는 물론 잃어버리는 사태에 처할 수도 있다.

반려묘를 데리고 외출한다면 케이지에 넣고 가는 것이 가장 좋다. 반려묘에게 그나마 안정감을 주는 배리어기도 하다. 그게 힘들면 최소한 목줄이나 가슴줄은 해줘야 한다.

반려묘와 밖으로 나가고 싶다면 반려인이 해야 할 일들이 또 있다. 각종 예방접종을 해야 한다. 구충제, 심장사상충 약 등을 먹이는 것도 필수다. 진드기 등 외부 기생충 제거에도 정성을 기울여야 한다. 집 밖에는 우리가 미처 예상하지 못한 온갖 위험 요인이 산재하는 탓이다.

이상한 음식이나 독초도 마찬가지로. 고양이도 개 못지않게 후각이 발달했다.

다만 개처럼 밖에 나가면 코를 땅에 박고 다니지는 않는다. 그만큼 이들을 접할 일이 상대적으로 적다. 그래도 외부에서는 반려인이 주의를 기울여 모든 것을 예방해야 한다.

교통사고 골절 수술을 받은 아이는 수술을 잘 마쳤다. 현재 입원해서 회복 중이다. 반려인은 필자에게 약속했다. "이제 다시는 제 욕심으로 아이를 밖에 데리고 다니지 않겠으니 꼭 늦게 해주세요."

기고

사회적 약속, 비상구

비상구는 일반적인 상황이 아닌 위기의 순간에 이용하는 문을 말합니다.

사람이 외부로 나가는 행상을 한 초록색 유도등이 있는 문을 말합니다.

이 곳은 내가 안전하게 밖으로 나갈 수 있다라는 전제가 있어야만 비상구란 말이 성립하게 됩니다.

하지만, 비상구 문을 열고 나갔는데 연기가 가득차 있다든지, 장애물로 이동에 제한이 있다면 비상구는 더 이상 의미가 없습니다.

어떠한 위기시에도 이용이 가능해야 한다는 아주 강력한 사회적 약속이기도 합니다.

비상구는 위험을 피하는데 마지막까지 사용해야 합니다.

비상구는 항상 비워 놓아야 하고, 불에 탈 수 있는 물건을 놓아

둔다든지, 장애물을 만들어 놓는다면 사람이 위기시에는 절망적인 상황에 놓일 수 밖에 없습니다.

최근 들어 많은 비상구와 관련된 신고가 접수되고 있습니다.

다중이용하는 노래방, 단란주점, 영화관, 터미널과 같은 시설에는 비워두어야 할 비상구나 계단, 통로에 물건을 적치했다고 신고와 함께 신고하면 포상금까지 받아가는 제도가 마련되어 운영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물론 아파트나 공장 같은 시설은 신고 대상은 아닙니다만, 꼭 지켜야 할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는 선량한 사회적 감시가 꼭 필요합니다.

김중선/부산소방일로119안전센터장

독자 참여를 기다립니다

E-mail : ihonam@naver.com FAX : (062) 222-5547

독자마당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생활정보전화

긴급전화

▲이주여성긴급전화	1577-1366	▲가상예보	131
▲응급질병상담	1399	▲법률구조상담	132
▲미아·가출인신고	182	▲인광알코올상담센터	222-5666
▲여성 긴급전화	1366	▲광주 남성의 전화	673-9001
▲청소년상담지원센터	1388	▲광주 여성의 전화	363-7739
▲아동보호전문기관	1577-1391	▲수도 고장신고	121
▲노인보호전문기관	1577-1389	▲전기 고장신고	123
▲응급의료센터	1399	▲가스사고 신고	383-0019

패륜범죄 예방을 위해 국민들의 관심이 필요할 때

광주·전남경찰청에 따르면 광주·전남 지역에서 자식이 부모를 때리거나 살해하는 존속범죄가 2018년 157건, 2019년 164건, 2020년 178건 등 총 499건 발생하는 등 매년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범죄 유형별로 존속폭행이 304건으로 가장 많았고 존속살해 120건, 존속협박 40건, 존속살인도 3건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가족 간 상해, 폭행 등의 문제가 발생해도 쉬쉬하는 우리사

회의 성격상 사건화 되지 않은 것까지 포함하면 그 수는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농업사회 기반의 대가족문화에서 비롯된 가정교육이 인성교육과 기본적인 사회화 기능을 담당해왔다.

가족 구성원들 간의 유대감 형성과 세대 간 교육으로 존경받는 부모, 그 모습을 본받는 자식이 우리 사회의 보통의 가정이었다.

하지만 핵가족화와 가족해체 등

으로 가족에서 더 이상 이런 기능을 수행하기 어려워짐에 따라 반도덕적이고 패륜적인 범죄에 대한 우리사회의 내성이 약해지고 있다.

그럼에 따라 존속범죄가 늘고 그 수명도 지능화되고 잔인해지고 있다.

군대 면제를 받기 위해 아들이 아버지를 살해하는가 하면, 빚 400만원 때문에 친구와 싸고 어머니를 숨지게 하는 등의 패륜범죄가 우리

사회를 혼란케 하고 있다.

존속범죄는 점차 증가하는 추세여서 범사회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초등학교 때부터 윤리와 도덕에 대한 교육을 내실화하고 가족 간 사소한 분쟁이 범죄로 이어지지 않도록 도덕성 확립에 우리 모두가 노력하여야 한다.

또한 피해자 보호와 범죄예방을 위해 이웃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 및 신고활성화, 경찰청 보호전문기관들의 연계·협업 강화가 시급하다고 본다.

허기량/담양경찰서중앙파출소장

호남신문 www.i-honam.com 대표전화 (062) 229-6000
광주서구운천로213스카이랜드309호

회장·발행인·편집인 김 평 호 편집국장 직무대리 서 선 옥

동부취재본부 전남 순천시 충효로 63 가동 2호 TEL (061) 905-2011 FAX (061) 905-2012

서부취재본부 서울시 노원구 공릉로 62가길 16-1 TEL (02) 2238-0003

기사제보 (062) 222-2580 광고직통 (062) 228-2580 FAX (062) 222-5547

등록번호 광주가 00021 (일간) / 1946년 4월 창간 / 구독료 월 10,000원 1부 500원 인 쇄 (주)남도프린테크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호남신문 후원 및 회원제 시행합니다

결코 쉽지 않은 길이지만 저희가 개척하겠습니다.
지금보다 건전해질 수만 있다면 어렵지만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외부로부터의 어떠한 압력이나 간섭에서도 자유롭기 위해서라면 당장의 손익에 급급해 하지 않겠습니다.

호남신문의 후원 및 회원제를 시행합니다.
액수의 많고 적음을 떠나 회원 여러분의 피와 땀이 배인 후원금을 소중히 접수하겠습니다.
후원금으로 광고의 일부를 대체해 광고주의 유무형 압력 등 편집권 침해로부터 탈피해 자유로운 제작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것 입니다.
호남신문은 후원 및 회원제의 시행으로 애국되지 않은 정론을 펼치는데 지역언론의 선봉장 역할을 자임합니다.

전국 일간지 최초로 복지면을 할애해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의 권익향상에 힘쓰고 있는 호남신문은 후원회원제를 통해 보다 더 굳건하게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당장 눈에 띄는 획기적인 성과를 기대하겠습니까마는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다보면 작은 내가 모여서 강을 이루듯 우리가 지향하는 목표점에 다다를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호남신문은 후원 회원들의 자발적 후원으로 운영되는 시스템을 차차 정착시켜 나갈 것입니다.
호남신문의 작지만 큰 변화의 몸부림에 시도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을 기대합니다.

